

삼위일체(三位一體) :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세례식에서 주례 사제는 예비 신자들의 이마에 물을 부으며 위와 같이 말한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으로 세례를 받자 그 ‘이름들’ 로 받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3항 참조).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가 시작되고 성호경을 그은 후, 사제가 교우들에게 하는 첫 인사이다. 이 인사말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정형화된 고백으로서, 이미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나타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2코린 13, 13).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원천은 세 위격(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하느님을 믿는 데에 있으며, 이를 삼위일체(三位一體)라 한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며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 (가톨릭교회교리서, 234항)이지만, 실제로 삼위일체 교리 자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하느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알려주신 신앙 조문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체험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서 신앙의 신비라고 보아야 한다. 즉 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부 하느님께서, ②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느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을 성취하게 하였고, ③ 성령 하느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교회는 아버지(성부)와 아들(성자)과 영(성령)에 대하여 같은(한 분이신) 하느님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부들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이를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다” (교회헌장, 4항).

따라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신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성적 탐구를 시도하는 것이 될 수 없고, 또는 그 내용이 신비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조문으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 오히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지금도 내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②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신 성자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③ 또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도록 파견되신 성령 하느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머무르시게 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친교와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2015년 8월2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영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김종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
브랜든 존스톤 (키모),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울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Table with 6 columns: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Rows include: 세실리아를 영혼을 위하여, 진복남 정부전 영혼을 위하여, 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진학수 이부향 영혼을 위하여, 윤경태 헬레나 영혼을 위하여, 이정은 수산나 영혼을 위하여.

Table with 4 columns: 자, 전례력, 미사 시간, 지난 주 일. Rows include: 8월25일(화) 연중 제21주간 화요일, 8월26일(수) 연중 제21주간 수요일, 8월27일(목) 성녀 모니카 기념일, 8월28일(금)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8월29일(토)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8월30일(일) 연중 제22주일 주일.

교우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4~8 유지석 6~10월 정 린 7~12월 오종신 염혜진 7~8월 박선경 7월 이대원 8월 김선식 류정임 김형진 이재덕 김채홍 최재진 9월 이재성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여호수아 24:1-15-18** 제 2 독서 **에페소서 5:21-32** 복 음 **요한 6:60-69**

화답송: 시편 34(33), 2, -3, 16-17, 18-19, 20-21, 22-23 (◎ 9ㄱ)

화답송



주님미얼마나 좋으신지 저희는맛보고 깨달아라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우리는 지금 연중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지내오면서 들었던 복음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나오는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연중 16주일 이래로 계속해서 ‘생명의 빵’, 즉 ‘성체성사’에 관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요한 6,48-50.).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4-55.)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며 ‘생명의 빵’은 바로 ‘당신의 몸’ 이라고 밝히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은 고백으로 표현되어 집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요한 6,60)

성체성사에 관한 예수님의 단호한 선언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만류하거나 불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가 잡는다고 있고 내버려 둔다고 떠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늘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강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을 억지로 곁에 붙들어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열두 제자에게도,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가졌던 결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례를 받았으며, 또 자신의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것들의 부족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적인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간혹 신앙의 위기를 겪으며 또 믿음이 부족한 탓에 크게 동요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거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응답 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 6,68-69)

구담 본당 신기룡 안드레아 신부

네가 누구냐

내 지금 가난하여도
이 눈빛 내님이 알고
이 영혼 내님이 짚어
바닷가의 한알 모래로
내 여기 있어도...

유경환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장종지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 료 설 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올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 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과산법 전문 (,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